



# 우리 안의 타자, 탈북민이 경험하는 일상적 폭력과 극복 역량

허지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연구교수)

## 탈북민, 여전히 낯선 이웃

2024년 기준 공식적인 탈북민 수는 3만 4천여 명이다. 하지만 통계 수치만으로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지 실감하기 어렵다. 송실대학교 김의혁 교수님께서 한 강의에서 한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편의점 브랜드, CU와 GS25의 점포 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비교하신 적이 있다.<sup>1)</sup> 일상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편의점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수인지 실감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해 매일 편의점을 지나는 것만큼 탈북민과 접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평통이 실시한 인식조사(2023)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8%는 탈북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sup>2)</sup> 그렇다면 물리적인 분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왜 대다수 한국인은 일상에서 탈북민을 접촉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일까? 탈북민이 주로 출연하는 몇몇 방송을 제외하면 왜 탈북민은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사회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되는 폭력의 범주는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은 비교적 비폭력적이며 안전한 사회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상 우리 일상의 폭력은 더 교묘하며 일상적으로, 구조적·개인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생각해 보면, 이를 이해하기 쉽다. 과거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폭력이 가해졌다면, 최근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지속적인 모멸감을 가하는 방식처럼 미묘하게 전개된다. 이처럼 일상에서 되풀이되어 발생하며, 교묘한 방식으로 가해지기에 피해자조차 '정상'으로 수용하거나 최소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는 폭력을 '일상적 폭력(everyday violence)'이라고 한다.<sup>3)</sup> 그렇다면, 탈북민들이 경험하는 한국은 어떠한 사회일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만큼 비폭력적인 것일까?

## 일상적 폭력

필자는 한국 정착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미묘한 차별과 배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청취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심층 면담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취한 그들의 부정적 경험 중 대다수는 일상적 폭력의 범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아직 미묘한 차별이나 배제의 행위는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다른 이들로부터 물리적으로(사회적 고립) 또는 감정적으로(무시나 소속 거부) 분리되는 경험으로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다양한 위협을 포괄한다. [표1]은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인 유형인 '거부(rejection)'와 '배척(ostracism)'을 유형화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sup>4)</sup>

1) 한국 편의점협회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CU의 점포가 1만7762개, GS25는 1만7390개로 2024년 누적 탈북민 수인 3만 4천여 명과 유사한 수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점포수 5만5000개로 포화된 국내 편의점 시장...CU-GS25-세븐일레븐 올해 전략은", 뉴스워커, 2025.01.16. 참조

2) "탈북민 3만 4천 명인데 여전히 낯선 이웃? ... 국민 78% '만난 적 없어'," 연합뉴스, 2023.11.08.

3) Heather R. Hlavka, "Normalizing Sexual Violence: Young Women Account for Harassment and Abuse," *Gender and Society* 28, no. 3 (2014): 337-58.

4) Paolo Riva and Jennifer Eck, eds.,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nd Reducing Its Impact* (Cham: Springer, 2016), 4.



배제: 물리적, 감정적인 타자로부터의 분리

<p>거부: 직접적인 부정적 관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인간화 언어</li> <li>• 차별 &amp; 낙인찍기</li> <li>• 기분 상하게 하는 비웃음</li> <li>• 미묘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묘한 공격</li> <li>• 미묘한 모욕</li> <li>• 미묘한 무효화</li> </ul> </li> </ul>	<p>배척: 무시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선회피</li> <li>• 망각됨</li> <li>• 정보배제(소외)</li> <li>• 언어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향된 언어</li> <li>• 언어적 배척</li> </ul> </li> <li>• 불편한 침묵</li> </ul>
<p>전형적인 부정적 심리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사회적 의도 &amp; 행동</li> <li>• 기본 필요 위협(소속감, 통제, 의미 있는 존재, 자존감)</li> <li>• 비인간화</li> <li>• 부정적 효과(예: 분노, 굴욕, 수치, 슬픔)</li> <li>• 신경학적 통증 &amp; “감정 손상(hurt feeling)”</li> <li>• 인지된 배척(예: 무시의 감정 &amp; 배제)</li> <li>• 관계적 평가절하</li> </ul> </li> <li>• 장기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착란</li> <li>• 우울</li> <li>• 무력감</li> <li>• 무의미함</li> </ul> </li> </ul>	

[표1] 일상의 사회적 배제의 유형과 결과<sup>5)</sup>

거부는 소속을 명시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거부당하는 것을 뜻하며 주로 차별이나 ‘낙인찍기(stigmatization)’의 형태로 가해진다.<sup>6)</sup> 한편, 배척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무시당하는 것으로 상대에 의해 관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할 때 경험하는 감정을 말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타자의 평가와 친밀함에 관련된 사소한 신호라도 예민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타인이 자신을 저평가하거나 거부하는 뉘앙스가 담긴 언어적·비언어적 신호를 인식하게 되면, 상당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부정적 심리 현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 타인의 평가를 인지하는 능력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예민한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유형이든지 배제에 따른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다.<sup>7)</sup>

## 차별의 시선, “깎아본다”

탈북민들이 흔히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착 초기 다른 억양으로 북한 출신임을 밝혔을 때 상대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감시 사회인 북한에서 생존해 온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상대의 시선과 태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식 표현으로 상대가 자신을 “깎아본다”는 인상은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Paolo Riva and Jennifer Eck, eds.,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nd Reducing Its Impact* (Cham: Springer, 2016), 4.

6) Kipling D. Williams, “Ostracism: A Temporal Need-Threat Model,”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007): 275-314.

7) Jonathan Gerber and Ladd Wheeler, “On Being Rejected: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 on Rejec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 no.5 (2009): 468-88; James H. Wirth, Michael J. Bernstein, Eric D. Wesselmann, and Angie S. LeRoy, “Social Cues Establish Expectations of Rejection and Affect the Response to Being Rejected,”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0, no. 1 (2017): 32-51.



“북한은 감시 사회잖아. 그러니까 이 축이... 북한 사람들이 말은 잘 못할지 몰라도 축은 딱 빨라. 벌써 나를 편견 갖고 낮춰보거나 부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피해야 하지 뭐 부딪쳐 봤어. ... 내가 통일안보 교육을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어도... 아주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허리를 조아리고... 이북이면 벌써 말투랑 눈길도 달라요. ... 그냥 자기네가 우위를 차지하고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 ... 그거를 딱 느꼈을 때 이거는 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40대 탈북 여성 S. 2011년 한국 정착)

“(북한 출신인 걸) 아는 순간에 깔아버리는. ‘난 너보다 우월적인 존재야’라는. ... 그러니까 은근히 말투에서 물어 나와요. ... 난 잘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 정착 얘기해 보면 상대방이 더 모르는데... 본인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우월의식이 있어요.” (30대 탈북 남성 K. 2001년 한국 정착)

“말을 하면 고향이 어디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 특히 한국 분들이... 난 북한 사람이라는 걸 오픈하면, 그 즉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벌써 말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그냥 낮추어 보는... 그 눈빛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말 톤 자체도 딱 그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대하듯 말 톤이 순간에 딱 어조가 변해요. ... 느낌이 진짜로 와요. 저도 북한에서 교육받을 만큼 다 했거든요.” (50대 탈북 여성 K. 2009년 한국 정착)

“경계를 하더라고요. 눈치가 그래... 북한에 살면서 눈치가 없으면 못 사니까. 항상 감시를 받으며 사니까. 눈치는 빨라요, 북한 사람들이. ... 그래도 한 석 달 지나니까 (경계가) 좀 풀어지더라고요...” (60대 탈북 남성 C. 2017년 한국 정착)

“탈북민이라고 딱 깔고 가요. 항상 상담할 때 어머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깔고 가요. ...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 나도 그러면 상담 센터 많으니까 ‘다른 센터 가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나와도 되는데... 나를 차별했으니 나도 너를 (차별) 할 거야.” (40대 탈북 여성 K. 2010년 한국 정착)

## 다양한 배척, “탈북민이라... 안 된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기회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험을 한 탈북민도 있었다.

“이제 막 지원서 넣고 ... 사회적으로 이게 북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외국인이다라는 편견이 많더라고요... 외국인은 (취업이) 안 된다, 이런 회사가. 이제 좀 험한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북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고... 탈북민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 (30대 탈북 남성 K. 2019년 한국 정착)

반면, 결혼을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배척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했어요. 반대 많았어요. 그게 우리 집에 오지 마. 족보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못 들어와... 폭력이죠 이게... 그러면서 양아들은 가능해요...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 친구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안 돼.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와 이거는 절대 안 돼. ... 그래서 저는 아버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아버들. ... 시간이 지나니까 (처가에서) 받아들인 하더라고요. 되게 소극적으로 처음에는 아예 발도 못들이다가... 저렇게 원하니까 결혼시켜 줘서. 그렇게... 대신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줘. ... 뭐 약간 이런 거... 지금도 썩 친하진 않아요. ...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가니까 명절에... 여성들은 여기 남한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좀 쉽죠. 남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 제 친구가 교회에 10년 넘게 다니면서 거기 목사님 딸하고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 그래서 결혼하자 이랬는데 ... 그 집에서는 사탄이 우리 집 못 들어온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탄이 아니었어요. 딸하고 결혼한다 하니까 사탄이 돼 버린 거야... 그 애가 엄청 상처 받았어요.” (30대 탈북 남성 K. 2001년 한국 정착)

가장 흔한 유형의 배척으로 ‘정보 배제’가 관찰된다. 예를 들면,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관한 정보를 탈북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일상적 폭력 연구자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매우 사소한 배척일지라도 무시당한다는 강한 감정이 동반되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들은 고용보험... 그거 타 먹으면서... 그걸 안 대줘요(알려줘요). 나하고 와이프가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그걸 안 대주고(알려주고) 자기네끼리만 다 그렇게 타 먹었더라고. ...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 더럽게 기본 나쁘죠.” (60대 탈북 남성 C. 2017년 한국 정착)

본인이 당한 배척보다 자녀가 배척을 당하는 경험도 비교적 흔한 사례로, 이런 경우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집에 하원 시간에 문이 열려 있어 데리러 딱 들어갔는데 이미 두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애가 철우랑 놀다 간다고 하니까 놀지 말라고... 철우랑은 놀면 안 된다. 철우 여기 사람 아니다. 철우 엄마가 여기 사람 아니다. 놀면 안 된다. ... 그냥 못 들은 척하고 ... 일주일도 안 돼서 유치원을 옮겼어요. ... 옮기고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 나중에 내가 7시까지 종일반 결제를 했는데 4시 전에 하원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철우만 그런 거예요? 다른 애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라서요? 내가 탈북민이라고 (원장님께) 오픈을 했으니까... 제가 탈북민이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 너무 막 진짜 화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을 결국 또 옮겼어요.” (40대 탈북 여성 K. 2010년 한국 정착)

직장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미묘한 언어폭력에 시달린 한 탈북민은 그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밝혔다.

“강서구 쪽에 갔다가 다시 (우리 사무실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잘못 보였나 봐요. ... 근데 이게 딱 상처를 한 번 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질문자: 처음에 어떤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저에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해’라고 하기도 했고 ...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만 말해도 계속 끼어들고 면박을 주고 ... 좀 우울함이 같이 왔는지.. 좀 더 해졌는지 작년에는 10월 달에 새벽에 눈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화가 나가지... 예민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가다가 1월 달에... 스트레스도 확 받으면서 거의 뭐 자살 예방센터 전화번호를... 그러다가 그 MBC (기상캐스터) 사건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공당에서도... 약간 괴롭힘 이런 걸로 (공문이) 내려와서... (직장 내 괴롭힘) ‘한번이라도 용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 톡 사그라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조심하죠.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금씩 피하려고... 회사 형 한 분이 북한 형인데... 이게 얘기를 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내 스트레스를 그 형이 다 받아서...” (30대 탈북 남성 K. 2019년 한국 정착)



또한 그는 인터뷰 당시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이슈로 인해 직장에서 배척과 언어 폭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을 통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느낌이 나는 한국 사람이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 시민증만 가졌을 뿐. 이제 같이 욕 안 하면 반대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 이제 윤석열을 같이 욕 안 한다고. ... 그걸 약간 왜 너는 우리를 간첩으로 보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나는 여기 사람,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그냥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30대 탈북 남성 K. 2019년 한국 정착)

유사하게 2등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고 밝힌 탈북민도 있다.

“우리는 여기 권리가 있다 해도... 막 무서워서 아무 말이나 못해요. ... 북한처럼 살아요. ... 제 땅이 아니니까 같은 민족이라 해도 제 땅이 아니니까 항상 재지요. 항상 텃세 있지 않아요. ... 여기 사람들이 텃세 있으니까 우리가 뭐 굴러온 돌이니까.” (60대 탈북 여성 R. 2020년 한국 정착)

## 탈북민의 평화적 역량

이런 배척이나 배제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에 관한 질문에 일반적인 대답은 ‘참는다’ 또는 ‘스스로 조심한다’였다. 갈등과 차별의 상황에서 평화적 행동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약자로서 갈등을 회피하려는 본능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평화적 역량, 특히 사회성, 호혜, 연대감에서 유래한 적극적인 평화행위로 볼 수 있다. 세 가치를 하나로 묶는 가치는 평화의 관계적 본성으로, “평화는 우리가 다른 인간 존재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탈북민의 경험에서도 미묘한 갈등이나 차별의 상황에서 자신의 일상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회성과 같은 개인의 평화적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치 원래 나 같았으면 때려쳤지. ... 참아야지 뭐. 하나원에서 배운 게 참이라는 거야. 북한 같으면 주먹이 나갔지. ... 어쨌든 처음에는 속도 잘 안주고 경계를 하더라고. ... 눈치가 그래요. 우리 북한에 살면서 눈치가 없으면 못사니까. 그 보위부의 안전부들 감시를 받으며 항상 사니까 눈치는 빨라요, 북한 사람들이. ... 한 석 달 있으니까 (좀 달라졌어요) 사무실에 혹시 면담을 올라가거나 연차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면. ... 그저 음료라도 하나씩 챙겨주거나... 박스 채로 사다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오라고... 우리 회사 간호사가 하나 있는데... 난 건강검진 받으면 볼 줄을 몰라요. 간호사에게 선생님 좀 봐달라고 주죠. 음료도 사주고.” (60대 탈북 남성 C. 2017년 한국 입국)

사회성을 발휘해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아예 갈등 상대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신만의 평화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일상적 평화의 역량 차이는 개인의 사회적 역량, 흔히 ‘눈치’와 같이 상대의 기분을 알아채는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 비롯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 분들 앞에서 말도 막 할 필요도 없고 다 재요. 다 재고 살아요... 어쨌든 우리야 여기 분들한테 놀린다고 봐야 될까... 좀 이 사람들이 높으면 우리는 낮다고 봐야지... 스스로 낮춰 봐야지. 그래도 나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이런 생각은 하는데... 국정원에서부터 우울증이 심하고... 내 몸이 갑자기 없던 병이 다 생겨 가지고 병원에서 살았거든요. ...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 죽을 생각까지도 했어요. 하나센터 상담사 분이 많이 고생했어요. 위로도 많이 해주고... 올해부터 조금 적응이 되는 거 같아요. ... 외로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지. 저는 여기서 적응 잘 못해 식당 안가요. ... 집에서 혼자니까... 대충 대충해서... 여기 사람들이야 텃새 있으니까. 우리야 뭐 굴러온 돌이니까... 저는 남한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 우리 저기 상담사 하나센터 분들밖에 몰라요... 한 명도 몰라.” (60대 탈북 여성 R. 2020년 한국 정착)

반면, 한국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자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도 많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국인)보다 내가 어떤 점이 우월할까. 내가 여기에서 지식적으로나 경력이나 학력은 모자라지만... 내가 우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해가지고 대처를 했죠.” (40대 탈북 여성 S. 2011년 한국 정착)

“제가 공부를 했어요. ...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때 간호사 학원을 다녔어요. 그 때 간호과장님이 되게 예뻐라 해주셨어요. ...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 잘해 이런 걸로(그런 이유로) 정말 제가 온몸이 젖도록 했거든요. ... (질문자: 식당에서 일할 때 비해서 간호사 되시니까 느껴지는 눈빛이 차별이나 이런 게 좀 덜하던가요?) 아니요. 그건 좀 비슷해요. ... 왜냐면 북한 출신이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허물없이 대하다가도 뒤에 가서는... 내가 오면 말하다가도 딱 끊고 욕하고... 자기네들보다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너무 나선다고 느꼈나 봐요. 그다음부터 같이 일하는 여자가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 제가 조금 그런 센스가 없어요. ... 알아도 모른 척 눈치를 좀 가져야겠구나. ... 제가 하나 더 배우고 나왔어요.” (50대 탈북 여성 K. 2009년 한국 정착)

한국 생활에 정착한 이후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도 있다.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탈북민들을 돕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유형도 있다.

“탈북자들 안 보려고 했어요. ... 탈북자들과 어울리면 내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 국정원에서 보니까 탈북자들이 의식 상태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 국정원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머리에 안 들어오지만 단어를 외워야 되겠고... 내가 내 이론이 있거든. 양반은 양반처럼 대해 줄게. 쌍놈처럼 나를 대하면 나도 쌍놈처럼 대하는 거야. ... 나는 (탈북 과정에서)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넘어갔고 한국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배워야 되고. ... 살려고 하고 또 대화를 많이 하고 ...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사가는 담배를 외우고 항상 그 사람이 두 갑을 사간다 그러면 그 담배를 딱 꺼내서... 자기 담배를 기억해준다는 걸 엄청 좋아해요. ... 문 여는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내가 고객하고 약속을 잘 지켰어. ... 내가 술자리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봉사도 알았어. 그때 탈북민 세계에 발을 들여놨고... 같이 술 마시고 뒤풀이하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기 시작했고. ... 지금은 북한 독거보호협회 대표를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장애인...” (70대 탈북 여성 L. 2015년 한국 정착)

물론 개인의 사회성과 같은 평화적 역량에 따라, 여전히 이방인이거나 ‘완전한 한국 사람은 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발견되지만, 일정 시점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체류 기간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회성이나 적극적인 태도와 같은 개인의 역량에 따른 차이기도 하다.



“북한 사람이랑기보다도 대한민국 사람... 특히 (해외) 나가면 여권 들고 나가고.” (70대 탈북 여성 L. 2015년 한국 정착)

“근데 저기(북한) 있을 때가 여기보다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람은 많은 정보를 머리에다가 저장할 수록 행복하지 않은 거 같아 단순하게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느껴요. ... 그래서 저는 가끔 단순해지려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차단하거나 그런 걸 가끔 해요. 예를 들어 (북에서) 온 친구들 중에... 진짜 앞집에 살던 애를 여기서 만났는데. 업소를 ... 다 그거 하더라고요. ... 여자애인데 몇 번 연락 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할수록 너무 불행한 느낌을 자꾸 받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 그게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차단하고... SNS도 이제 정하고 싶으면 숨김으로 해놓고 찾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거나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30대 탈북 남성 K. 2019년 한국 정착)

## 나가는 말: 여전한 편견과 미묘한 폭력

남북한 사회는 상당히 변화됐음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는 비판이나 탈북민을 향한 ‘배신자’, ‘빨갱이’와 같은 여전한 낙인찍기는, 이미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일상적 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을 바라보는 고정관념...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봐요. 고정관념은 잘 안 바뀌거든요... 탈북민이예요 그러면 일단 대화의 주제가... 부정적인... 뭐 사람 잡아 먹어봤냐부터 물어봅니다. ... 항상 부정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 탈북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고정관념이 가장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하루 이틀 내에 생긴 건 아닐 거예요. 맨날 보면 뉴스 같은 것도... 썼던 영상들을 한 20년, 30년 전에 봤던 영상이 계속 돌아요. ... (북한도) 많이 바뀌었는데... 계속 그 영상에서 보는 이미지를 연상하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은 거의 안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한참 발전했는데 북한은 거의 과거 영상을 틀어주면서... 물론 한국이 더 발달했지만 북한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 (북한을) 왜 굳이 끌어안아... 친구는 할 수 있어. 그냥 무역 상대는 할 수 있어. ... 근데 (통일은) 우리 결혼,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30대 탈북 남성 K. 2001년 한국 정착)

“시아버지의 부모님이 황해도 분이세요. ...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 해주는지. 그게 나는 또 이해가 안 돼요. ...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하려고 하니 남편이 시부모님이 1억을 해준대요. 내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5천이니깐 1억 5천으로 그럼 결혼 하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거지. 우리 이름으로 대출받으라. ...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는... (그 이유가) 결혼 전에 초대할 안 했다는 거죠. ... 대한민국에서는 결혼 전에 그 남자 엄마도 가보고 여자 엄마도 가보고 이런 룰이 있다... 결혼식 날에 친구가 트럼펫을 불어줬어요. 애가 탈북민 단체에서 되게 유명한 트럼펫 불던 친구인데 평양의 밤이라는 노래를 연주해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거기서 화를 내셨어. (자기) 친구들은 (며느리가) 탈북민인거 모르는데 대놓고 얘기를 하나. ... 자기가 6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쌓아 놓은 커리어가 있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고. ... 고모에게 그때 인사드리러 갔는데 제가 퇴근하고 갔거든요.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퇴근길이라. 근데 고모가 그 얘기를 했대요. 웃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예의가 없다고... 시아버님은 한번 남편한테 화가 나셨을 때 빨갱이랑 살더니 니가 그렇게 됐다고.” (40대 탈북 여성 K. 2010년 한국 정착)



“탈북민 한 분이 진보 정당에서 하는 무슨 모임에 갔다가 술자리에서 배신자라고... 조국의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야. (질문자: 그런 시각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탈북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한 사람을 이길 수 없잖아요. ... 근데 이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 저는 지금 보면 나는 탈북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한국에서는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아니면 중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정체성에 많이 혼란이 와요. ...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지칭할 때는 남한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바뀌었구나... 한국에 살았던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기도 하고 ... 이제 우리나라라고 말할 때 ‘나는 남한 사람이야’라는 게 포함돼 있는 거죠.” (30대 탈북 남성 K. 2001년 한국 정착)

현재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할 때, 외국인들의 정주 인구는 더 증가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물론 이주민들이 사회성과 같은 개인의 평화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평범한 한국인들이 탈북민이나 이주민을 향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낙인찍기나 언어폭력, 다양한 배척과 같은 행위가 명백한 폭력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집단들이 일상에서 작은 갈등과 충돌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실현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개인들의 사회성과 호혜, 연대의 정신이 발휘될 때, 사회의 안전은 유지되고 상이한 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난민을 정책적으로 대규모 수용했지만, 난민과 수용국 시민 모두 평화의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인식과 행동이 부족했던 독일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이미 국제화된 사회에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일까?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 존재들로 구성된 우리 사회의 ‘평화를 이루는 주체는 바로 평범한 개인’이라는 생각을 강조하는 ‘일상적 평화’와 ‘일상적 폭력’이 전해주는 교훈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독일처럼 너무 늦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허지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연구교수)



허지영은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at Berlin)에서 정치학과 박사학위(2020)를 취득하고 서울연구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연구교수와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작으로는 “The Iran Nuclear Deal(JCPOA) and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2025)”, “Envisioning Agonistic Inter-Korean Relations: Lessons Learned from Germany and Ireland(2025)”, 『전쟁에게 평화를 묻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연구(2025)』, “분쟁관련 여성폭력: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미얀마의 로힝야 제노사이드를 중심으로(2024)”, 『폭력개념연구(2024)』, 『평화개념연구(2023)』 등이 있다.

---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